

# 삼성전자, 세계 TV 시장 정상등극

2006년 판매량·매출액 모두 1위 올라 ... LCD·PDP는 일본이 1위

삼성전자가 2006년 34년만에 세계 TV 시장을 제패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LCD TV와 PDP TV, 브라운관TV 등을 합친 전체 TV 시장에서 판매수량 점유율 10.6%를 기록해 LG전자 9.8%, TTE 9.4%, 필립스 6.8%, 소니 6.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도 14.2%의 점유율로 소니 11.3%, LG전자 8.6%, 파나소닉 8.5%, 필립스 8.3% 등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과 판매량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1972년 TV사업에 뛰어든 이래 34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2006년 세계 LCD TV 시장에서도 판매수량 점유율이 13.4%로 필립스 13.0%, 소니 11.6%, 샤프 11.3%, LG전자 7%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LCD TV 매출 점유율은 소니가 16.0%로 삼성전자(15.0%)와 샤프(11.5%)를 누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PDP TV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29%의 매출 점유율로 LG전자 16%, 삼성전자 14%, 필립스 10%, 히타치 8%, 파이오니어 7% 등을 누르고 정상을 지켰다.

브라운관 TV 시장에서는 중국의 TTE가 매출과 판매수량 기준 점유율 모두 12%를 기록해 판매수량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각 10%)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에서는 삼성전자(11%)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정상을 유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7년 LCD TV 1100만대, PDP TV 300만대 등 평판TV 1400만대와 프로젝션 TV 및 슬림 TV 1000만대 등 2400만대의 TV 판매실적을 올려 세계 TV 시장 1위를 굳힐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14>